

『靈樞·五色』에 대한 相學的 考察 - 五色篇과 人相古典에 나오는 察色 중심으로 -

주선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Yeongchu·Ohseak(靈樞·五色)』 and Physiognomy - Focused on Inspecting Colors -

Sun-Hee Joo

Dept. of Management for Physiognom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Objectives : In physiognomy, human emotion such a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in social relation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impression formation. Various emotional feelings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docrine action and the muscle activities as well as changes of one's impression, which results in changes of one's life. On the other hand, such alterations in life may also bring changes of one's impression. The method of physiognomic examin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inspecting colors that makes a diagnosis of physical conditions. Thus, based on 『Yeongchu·Ohseak(靈樞·五色)』, the present study compar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of the physiognomy and the Korean medicine.

Methods :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will be compared to each other and analysed with the respect to inspecting colors suggested by preceding research in physiognomy and 『Yeongchu·Ohseak(靈樞·五色)』.

Results & Conclusions : From this study, we found physiognomy and the Korean medicine shares the same theoretical background. The differences that we found in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 The inspection diagnosis in the Korean medicine focuses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however, physiognomy focuses on the prognostication of one's life in order to lead a happy life. As the ultimate goals of the two approaches differ with each other, it is peculiarly challenging to compare these two in detail. Therefore, the future study should address physiognomy as a part of the Korean medicine so that the Korean medicine can contribute to mankind for a better and healthy human life.

Key words : Yeongchu·Ohseak(靈樞·五色), Physiognomy, Face color, Inspecting color

I. 緒論

우리의 삶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수반되는喜怒哀樂은 인상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얼굴 모습이 생물학적인 유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에 의해 얼굴의 모양 및 안색이 변한다.

다양한 감정의 기복에 의해 내분비 작용과 근육의 활동이 달라짐으로써 얼굴의 근육뿐만 아니라 뼈의 형태까지도 변형시키니, 여기에서 體相에 대한 이론 곧 手相·足相·面相·骨相 등의 이론이 나온다.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대부분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상대방의 얼굴이고, 그 얼굴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하니, 얼굴의 표정과 색깔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상학 이론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보고 성격과 직업 및 인간관계는 물론 건강 등을

접수 ▶ 2013년 05월 09일 수정 ▶ 2013년 05월 28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2.
교신처 ▶ 주선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 얼굴경영학과
Tel : 070-7730-0020 E-mail : jsh80000@gmail.com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그런 추측이 자주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는 한다. 이러한 추측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면 그것이 相學이 된다. 얼굴의 구성에서 눈·코·뺨·입·턱의 특성이나 몸동작에 따라 그 사람의 품성과 감정 및 건강상태까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상학적 평가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몇 가지 간단한 기준은 첫째, 이마가 둥글고 넓을수록 지적이라는 것이고, 둘째, 코가 높고 기운차게 잘 발달할수록 남성적이며 셋째, 입술이 두터울수록 관능적이고, 얇을수록 신화가 적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며, 넷째, 턱이 넓고 풍부할수록 지배력이 크다는 것이다¹⁾. 그리고 뺨이 잘 발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 등이다. 얼굴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성은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관련하여 사회적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상학 이론은 한의학에서 일찍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는 망진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었다. 곧 얼굴의 형태나 색깔 및 행동 등을 보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파악하여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觀形察色의 하나로 심장·신장·폐·간·비장 등을 얼굴의 각 위치와 연결하여 병증을 관찰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이마를 心火로, 왼쪽 뺨을 肝木으로, 콧마루를 脾土로, 오른쪽 뺨을 肺金으로, 아래턱을 腎水로 보는 이론은 음양오행론을 활용하여 장기를 얼굴의 각 부위에 나눠 적용시켜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이론체계이다²⁾.

외부에 드러난 여러 상황을 관찰하여 속에 있는 병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인체가 본래 유기체로서 오장을 축으로 육부와 표리가 되고 경락을 통로로 내외로 통하며, 體表·四肢·五官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부분의 병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의 병변이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그것을 관찰하여 장기와 기혈의 이상을 알게 되는 것이다³⁾. 『靈樞·本藏』에서 “밖으

로 응하는 것을 보고 안으로 감추어진 것을 알면, 무엇이 병인지 알 것이다.”⁴⁾라고 하고, 『難經』에서 “보고서 아는 것을 神이라 하고, 듣고서 아는 것을 聖이라 한다.”⁵⁾라는 것도 이상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인상학에서는 피부색과 피부탄력을 평생의 빈부를 보는 제 1의 자리로 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즐거운 일이 많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해야 운이 나고 탄력이 생긴다. ‘속 상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오장육부가 성치 못하다는 뜻으로, 고민이 생기면 얼굴 색부터 어두워진다. 웃을 일이 많으면 탄력이 붙는 반면 지푸털수록 얼굴은 처진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지의 피부상태를 보며 많은 조짐을 느끼게 되는 듯하다.”⁶⁾

形象醫學을 깊이 연구한 芝山 역시 形色脈症 중에서도 形色을 더 중시하여 觀形察色을 강조하였다. 맥증보다 형색을 더 중시한 이유는 인체의 형상이 천지의 교합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맥증은 그에 상응하여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 산세에 따라 낮은 곳은 물줄기의 흐름이 완만하고, 높은 곳은 흐름이 빠른 것과 같은 이치다⁷⁾. 芝山 朴仁圭가 주장하는 形象醫學 역시 相學에서는 觀形察色이고, 韓醫學에서는 望診을 더욱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形象醫學이란 자연인의 形象을 보고 그 속에 내재된 원리에 입각하여 생리·병리를 규명해서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며 나아가 양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진찰하여 병리를 규명하고 처방을 구하는데 있어서 形象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形色脈症을 合一하여 四診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즉,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것이 形象醫學의 특징이다.”⁸⁾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에서의 望診이나 相學에서의 觀形察色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相學에서는 주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파악하기 목적으로 그 이론이 정립되어 활용되었던 것일 뿐이다. 동일하게 얼굴의 형태나 색깔, 자세 등을 관찰하여

1)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4.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p.119.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素問·刺熱篇)
3) 李鳳教 編著. 『漢方診斷學』. 서울 : 成輔社. 1997 : p.42.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p.215.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所病矣.”(靈樞·本藏)
5)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p.109. “經言,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 何謂也.”
6) 朱宣姬.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pp.102-103.
7) 朴駿奎. 『형상의학』.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3.
8) 朴駿奎. 「芝山 朴仁圭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p.1.

계각기 자신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지만 결국 인간의 행복 곧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상학의 관형찰색은 길흉화복의 이치를 사람의 얼굴에서 찾아 마음을 닦고 표정을 바꿈으로써 흉과 화를 피하여吉과福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한의학의 望診은 건강상태를 얼굴에서 찾아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오래 동안 相學을 연구하면서 『麻衣相法』⁹⁾, 『柳莊相法』¹⁰⁾, 『達磨相法』¹¹⁾ 등의 내용이 醫書와 거의 일치하지만 간혹 의문인 것도 있었다. 韓醫學과 相學에서 말하는 察色은 과거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그 활용도가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韓醫學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望診의 방법들을 발전시켰다면, 相學에서는 인생의吉凶禍福을 알기 위해 相法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다. 叔服¹²⁾과 姑布子¹³⁾ 때의 상법은 주로 骨相을 위주로 한 것이었으나 唐學¹⁴⁾에 이르러 氣色을 살펴보는 법이 가미돼 인상학의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전해진다¹⁵⁾. 상학에 대한 연구는 얼마 전까지 재야에서 번역에만 치중되었던 것이 2006년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가 생기면서 제도권으로 진입하였고, 이 학과에서 『얼굴경영&』·『얼굴경영&2』·『얼굴경영&3』이라는 학술지를 출간하여 전국 다수의 도서관에 보급한 상태이며, 현재는 몇몇 대학과 대학원에 相學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의학에서 한 학과를 이룬 형상의학과 망진에 관한 연구와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芝山 朴仁圭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한 연구」 외에도 다수가 있다¹⁶⁾. 이와 같은 한의학

적 연구와 논자가 그동안 연구하고 임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학의 찰색 특징들이 한의학의 망진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곧 우리 얼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색이 나타났을 때 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靈樞·五色』의 내용을 相法古典에 나오는 察色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한의학의 역사 상 철학, 종교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관련 학문 분야가 어떻게 결합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또한 『黃帝內經』 속에 수용되어 있는 여러 진단 및 치료 관련 방법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영역을 폭넓게 바라보고 고찰해 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本論

1. 얼굴 부위의 명칭과 神氣·察色

얼굴부위의 神色과 形態는 相으로 運氣를 읽을 때나 望診에서 매우 중요하다. 얼굴부위의 神色과 形態를 관찰하면, 相學的으로는 그 사람의 吉凶禍福을 알 수 있고, 韓醫學的으로는 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柳莊相法』에서 “남녀 모두 혈색이 밝고 왕성하면 부귀와 장수를 누릴 수 있

9)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77. 麻衣라는 이름은 송나라 때 湘山野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 마의상법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마의선사에 대해서 대한화사전에 ‘마의는 송나라 시대 상술에 밝았던 인물이며 陳搏의 스승으로서 늘 麻衣만 입고 산속에 홀로 살았다’고 기록돼 있다. 마의선사가 제자 陳搏에게 전한 相學的 기본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이다.

10)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 柳莊相法은 명나라 초기 황제의 측근에서 인사에 관여하던 인물이 저술하였으므로 그만큼 실용적이고 세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 永樂百問은 황제와 저자가 相術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점이 특징이다.

11)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73. 達磨相法은 남북조 시대 인물로 達磨는 面壁九年하여 상법을 연구, 포교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설이 있다. 한편, 禪을 닦는 사람이 相法을 내세워 相을 본다는 것은 達磨를 욕되게 하는 일로, 시중에 나도는 達磨相法은 다른 사람이 가탁하여 쓴 것일 수 있다고 禪學 쪽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달마조사의 제자들 중에 일행선사 같은 상법의 대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풍수학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신라 말의 도선국사가 당나라 일행선사로 부터 인상학을 배워 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달마대사와 상법이 전혀 무관하다는 반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12) 朱宣姬. 『인상학이해』.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6. 좌전에 의하면 상학, 천문, 풍수에 능하며 상학의 태두로 인정받고 있다.

13) 朱宣姬. ibid. 공자 당대 인물로 공자의 얼굴을 본 뒤 “日華月角河目海口, 可知聖人之誕.”이라 평함.

14) 朱宣姬. ibid. p.7. 위나라 사람 唐學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천의 史記 列傳(권79)에 趙나라의 대신 이태의 상을 보고 “100일 이내에 국가의 정권을 장악한다.”고 예언한 것과 燕나라 출신의 유세객 蔡鐸의 상을 보고 “앞으로의 수명이 43년 남았다”고 말한 것이 적어있다. 荀子の 非相編에도 “옛적에 명상 고포자가 있더니 지금은 당겨가 있다”라고 써어있을 정도로 그의 인상학 실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15) 朱宣姬. ibid.

16) 金光浩. 「時·空合一의 관점으로 살펴본 안면망진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150.
白根基.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白根基. 「精氣神血科의 形象에 대한 연구」. 大韓形象醫學會誌. 2005 ; 6(1).
곽노규. 「감각과 신체 : 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2007 : 3 : 77-95.
박석준.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 신경 개념의 도입과 기」. 과학사상. 2003 ; (47) : 40-67.
조동욱, 김선영. 「망진을 위한 정면 얼굴 영역 및 특징 요소 추출」.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05 ; 30(6C) : 585-592.

다. 그러나 어두운 것이 안에서 막혀 있고 흑색과 적색이 밖에 있어 탁하면, 반드시 빈궁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혈색이 분을 바른 듯이 희지만 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에서 ‘혈색이 피어나지 않으면 평생 되는 일이 없다’라 하였다.”¹⁷⁾ 張錫二는 “얼굴의 각 부위는 안으로 장부와 연결되었고 경락이 모여 있으며 氣化가 소통하여 神明이 發하기 때문에 얼굴부위의 관찰을 통하여 臟腑, 經絡, 氣化, 神明 등의 病變을 이해할 수 있다.”¹⁸⁾고 한다.

『麻衣相法』에서 “骨格이란 바뀐이 없으니 相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일생의 榮枯를 알아내야하고, 氣色은 자주 변하는 것이니 行年(流年)의 吉凶을 徵驗할지니, 아는 자 참고하면 사람의 貴賤을 거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¹⁹⁾라 한 것은 얼굴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앞으로의 논의에서 필요한 얼굴 각 부위의 명칭부터 알아보자. 왼쪽 그림 『達磨相法』 「十三部位總要圖」²⁰⁾는 이마의 중앙 상단에서 턱까지 任·督脈을 따라 차례로 13부위 곧 1) 天中, 2) 天庭, 3) 司空, 4) 中正, 5) 印堂, 6) 山根, 7) 年上, 8) 壽上, 9) 準頭, 10) 人中, 11) 水星, 12) 承漿, 13) 地閣 등이다. 이 선의 좌우로 9개에서 11개까지 각 부위별로 안면의 좌표를 자세히 나뉜 설정해 놓았다.

13부위는 얼굴을 크게 삼등분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한 것, 곧 이마를 天中과 天庭으로, 코 아래를 人中, 턱을 地閣으로 명명하고 다시 더 자세히 세분하였다. 相學的 이러한 명칭들은 『靈樞·五色』의 각 부위 명칭과 대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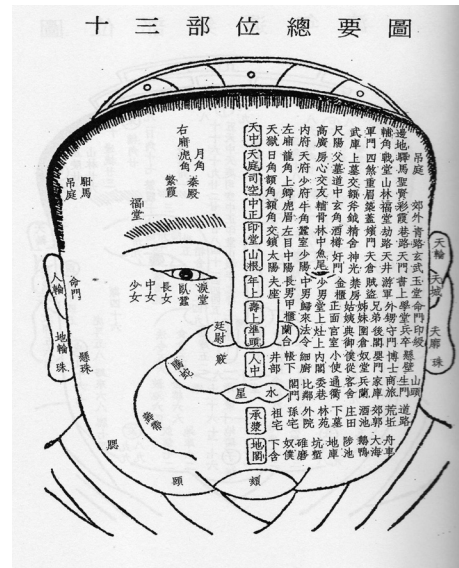


그림 1. 十三部位總要圖

이렇듯 醫書는 물론이거니와 相書에서까지 외면의 형체 보다는 그 형체의 내면을 결정짓는 神氣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麻衣相法·達磨祖師相訣秘傳』에서 “첫째로 相은 神을 근본으로 함이다.”²¹⁾라고 하였고, 「麻衣先生石室神異賦」에서 “사람의 일신은 神氣로 위주하고, 形貌를 그 다음으로 삼는데 무릇 사람의 상을 보는 요령은 精神과 氣色을 중요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에 쇠왕이 있고 기색은 생극의 이치가 있음이라. 이것을 자세히 살펴면, 길흉을 단정할 수 있고 죽고 사는 것을 결단할 수 있다.”²²⁾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形보다는 神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神은 생명활동의 원천이고 神氣는 신이 외부로 발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작용을 포함하여 정기와 혈기 등을 포괄하는 말로²³⁾, 눈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⁴⁾. 그래서 『柳莊相法·壽夭得失』에서는 “해와 달(두 눈)에 광채가 없으면 바로 죽을 것이고, 언제나 눈이 작고 광채가 없으면 30을 넘기지 못한다. 머리는 크고 정수리가 뾰족하며 머리 피부가 말랐다면 수명이 36세 정도이다. 책에서 顏回²⁵⁾의 수명이 짧은 것은 모두 눈의 신기가 흩어지고 눈빛

17)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92. “男女血明旺, 可許富貴壽年. 昏昏在內爲滯, 黑赤在外爲濁, 血滯血濁, 必主貧窮. 血白如粉, 爲色不華, 書云, 血色不華, 一世多蹇.”
18) 張錫二. 「『黃帝內經·素問』에 나타난 望診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8 ; 2(1) : p.286.
19) 朱宣姬. 『동양상법 및 실습』.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59.
20) 申秉澈. 『達磨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p.16.
21)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45.
22) 朱宣姬. 『동양상법 및 실습』.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81. “人之一身, 以神氣爲主, 形貌次之. 凡相人之法. 精神氣色以爲要. 何則精神有衰旺, 氣色有生剋, 詳而觀之, 則吉凶佳定, 死生可決矣.”
23) 丁彰炫. 「神에 대한 연구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pp.29-30.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p.342.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靈樞·大惑論)
25) 중국 춘추 시대의 유학자(B.C.521~B.C.490). 자는 자연(子淵). 공자의 수제자로 학덕이 뛰어났다.

이 들떴었기 때문이며, 太公²⁶⁾이 80세를 누린 것은 다만 귀 색깔이 서리와 눈처럼 희었기 때문이었다.”²⁷⁾라 하였고, 『達磨相法』에서는 “근심이 없음은 눈빛의 깊고 얕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으로 죽을 우려가 없는데도 눈빛이 희미해지면 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정도로 病과 死를 구분한다. 병이 있는 자는 눈의 움직임과 정지함으로 생사를 구분한다. 병이 있으면서 눈빛이 사라진다면 눈동자의 정지함으로 죽을 조짐을 안다.”²⁸⁾라고 하였다.

“色은 神의 표시여서 신이 왕성하면 색이 왕성하고, 신이 쇠약하면 색이 쇠약하며, 신이 숨으면 색이 숨고, 신이 드러나면 색이 드러난다. 곧 神은 五臟·六腑·心 등과 함께 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²⁹⁾ 안색을 통해 神까지 볼 수 있다고 한 까닭은 찰색을 통해 神을 비롯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찰색 11종류와 쉽게 구별되는 4가지 색, 부위별 찰색의미에 대해 相學的으로 알아보겠다.

[十一色]³⁰⁾

動色 - 인당의 기색이 벌꿀에서 나오는 밀의 빛처럼 밝되, 안으로는 깊이 밝고(深明) 겉은 살짝 어두워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 같음. 일을 도모하는 상태임.

守色 - 눈, 코, 귀, 입 얼굴전체가 밝지도 어둡지도 흐리지도 않으나 다만 길흉에 따라 나타나고 없어짐.

散色 - 색은 있되 기가 없어 누렇게 검고 희어 얼룩지는데 이런 색이 나타날 때 경영하면 패함. 가만히 있으면 손실은 보지 않음.

聚色 - 기가 몸 안에서 잘 움직이는 상태. 양쪽 이마와 턱에 누런빛이 돌면서 얼굴이 화사해져 열은 자줏빛으로 변하면 막혔던 일이 해결되며 액도 물러감.

變色 - 어둡던 것이 밝아지면 길하고, 밝던 것이 변하여 어두워지면 흉하게 되나, 눈에 정기가 있으면 대흉은 면함. 하루 혹은 삼사일에 한번이라도 얼굴색이 어둡게 변하면 현재의 얼굴색이 좋다하더라도 결국은 흉하게 됨. 반대로 청흑색이던 얼굴에 누런빛이 코와 귀와 인당에 나타나면

막혔던 운도 트임.

害色 - 콧등이 붉으면 官災刑厄이 있고, 양턱과 인중이 어두우면 낮선 여인에게 害를 당하고, 콧방울 양옆이 붉으면 損財가 있고, 이마 양옆이 붉으면 火災, 인당이 푸르면 刑厄, 얼굴이 얼룩지면 出行에 害가 있고, 턱이 검으면 水厄, 눈빛이 누렇게 푸른빛이 감돌면 大害·大驚할 일이 생김.

利色 - 어두운 가운데 차차로 귀, 준두, 관골, 뺨, 턱이 밝아오고 손바닥과 손등에 윤이 나며 눈이 맑으면 일이 순탄하게 풀림.

蹇滯色 - 탁한 색으로 五臟에 이상이 생기면 양입술 위와 양턱이 흠뻑처럼 누렇게 되고 귀와 코가 연기처럼 어둡고 얼굴전체가 탁해 성사되는 일이 없음.

紅紫赤色 - 麻衣道士 말씀에 이 三色이 가장 분별하기 어렵다 함. 吉凶禍福을 달리하는 색으로 正紅色은 연이은 복록을 예고하는데 이 붉음이 흩어지면 虛事가 되고, 고운 붉은 색이 피부바깥으로 올라와 正紫色이 되면 귀하게 됨. 쉽게 얻는 紅色이 얼굴전체에 나타나면 亨通함. 赤色은 心經·神經에서 나와 마음을 극하여 초조할 때 생기는 색으로 불길함. 적색이 많으면 死亡하고 적으면 破家함.

滑黴色 - 기름에 때가 묻은 듯하며 떠있는 색으로 머지 않아 재앙이 옴.

浮光 - 백분처럼 희고 곱지만 少年, 老年辛苦함. 색이 맑을수록 刑獄, 여성은 자식을 극하고 외롭게 됨.

정신산란, 재앙의 근본이 되는 색임.

[네 가지로 보는 색 구별법]³¹⁾

黃美色 - 피부보다 맑은 색으로 윤기가 있고 주황보다 약간 짙은 주홍색으로 기쁜 일을 암시하는 색.

蒙色 - 회색이나 담배연기 같은 색으로 근심 걱정을 암시하는 색.

赤色 - 피부가 별에 그을렸을 때 나타나는 붉은 색으로 재산상·신체상으로 재앙을 암시하는 색.

黑色 - 몽색보다 짙은 검은 구름과 같은 색으로 파산이나 이별, 사망을 암시하는 색.

26) 周나라 初期의 정치가.

27)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54. “日月無光, 卽死, 常時目小無光, 不滿三十之外, 頭大頂尖皮又乾, 四九之壽. 書云, 顏回壽短, 皆因神散光浮. 太公八十, 只爲耳如霜雪.”

28) 申秉澈. 『達磨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p.35. “無憂者 以淺沈分. 病死無憂而目光脫, 病所發也, 故以脫之沈淺, 分病死. 有病者 以動定別存亡, 有病而後目光脫, 卽以瞳子之定者 爲死兆.”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p.81. “五藏已敗, 其色必夭, 夭必死矣.”(素問·三部九候論)

洪元植. ibid. p.39. “心之合脈也, 其榮色也.”(素問·五藏生成)

洪元植. ibid. p.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素問·六節藏象論)

30) 曹誠佑. 『觀相大典』. 서울 : 明文堂, 1991 : p.293-298.

31)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p.87-88.

[相法에서의 察色부위 해설]³²⁾

天中·日月角 - 뜻밖에 생기는 일에 대한 길흉판단
 邊城 - 여행이나 타지 사람과의 관계판단
 天倉·輔角 - 윗사람과의 길흉판단
 山林 - 재산상속이나 신산에 관한 길흉판단
 驛馬 - 직장변동이나 이사에 관한 길흉판단
 官祿 - 현재 운에 대한 길흉판단
 福堂 - 자신의 재산에 관한 길흉판단
 福德宮 - 눈썹위로 교우관계에 대한 길흉판단
 兄弟宮 - 형제간의 길흉판단
 印堂 - 자신의 희망달성의 길흉판단
 山根 - 가정·건강에 대한 길흉판단
 妻妾 - 자신의 배우자·이성에 대한 길흉판단
 奸門 - 자신의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길흉을 판단
 田宅 - 자신의 주택과 현재 운세의 길흉판단
 男女 - 자손에 관한 길흉판단
 觀骨 - 사회·친지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길흉판단
 土星 - 자신의 신분에 관한 길흉판단
 左右土星 - 분실물·도난품에 관한 길흉판단
 左右人中 - 의식·상속에 관한 길흉화복
 法令 - 자신의 직업에 관한 길흉화복
 承漿 - 약과 음식물에 관한 길흉화복
 奴僕 - 아랫사람·부하에 관한 길흉화복
 地閣 - 주거·생활안정에 대한 길흉화복

[韓醫學의 察色의미]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12경맥과 365락이 모두 얼굴로 올라간다고 하여 안면이 인체의 모든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素問·刺熱論』에서는 열로 인한 질병의 경우 오장의 부위를 나누어서 먼저 붉어지는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고찰하게 될 『靈樞·五色』에서는 오장육부의 구역을 얼굴에 배속하고 그 가운데 靑赤黃白黑五色이 寒, 熱, 痛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기타 『素問·風論』과 『靈樞·衛氣失常』, 『靈樞·五閱五使』 등에서 일반적인 안면의 질병 진단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참고

로 『素問·刺熱論』의 부위 배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左頰先赤 - 肝熱病者
 顏先赤 - 心熱病者
 鼻先赤 - 脾熱病者
 右頰先赤 - 肺熱病者
 頤先赤 - 腎熱病者

위의 설명처럼 察色은 相學的의 꽃이요, 열매로 비유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靈樞』에서 五色이 따로 분류되어 하나의 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五色」에 관한 것으로 가능한 구절마다 상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2. 『靈樞·五色』에 대한 象學的의 고찰

相書에서는吉凶과 관련하여 顏色을 말하고 있다. 『麻衣相法』에서 “기색에도 또한 오색의 변화가 있으니 배우는 사람은 자세히 관찰해 길흉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³³⁾, “입술 색이 丹砂³⁴⁾를 바른 듯 붉으면 귀하고 복이 있고, 藍錠³⁵⁾과 같이 푸르면 재앙이 따르고 요절하게 된다. 색이 어둡고 검으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惡死하게 된다. 빛나는 紫色이면 의식이 즐겁고, 색이 희고 곱다면 귀한 처를 만난다. 색이 황색이나 붉은 사람은 貴子를 둔다.”³⁶⁾라고 하여 빛나고 밝은 색을 좋은 것으로, 칙칙하고 어두운 색을 흉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또한 색 외에 목소리·정신·골격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에 富貴·貧賤과 賢愚·壽夭·禍福·善惡이 한결같이 相의 形貌·皮膚·骨格·氣色·聲音에 의하여 정해지나니 山翁(麻衣先生)이 세상사람 능히 이 같은 법을 미리 아는 자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함이니라.”³⁷⁾라고 적혀있다.

반면에 한의서에서는 오장육부와 연결하여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顏色을 말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玉機眞藏論』에서 “五臟이 이미 망가졌다면 안색이 반드시 어둡고, 어두우면 반드시 죽는다.”³⁸⁾라고 한 것에 대해 王冰³⁹⁾이

32)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pp.87-88.

33) 田龍元 譯. 『麻衣相法 역주』. 서울 : 월간역학. 2007 : p.48.

34) 주사(朱砂)를 말함.

35) 땡땡이나무 과일의 색으로 짙은 파랑보라색이다.

36) 田龍元 譯. 『麻衣相法 역주』. 서울 : 월간역학. 2007 : p.47.

37)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p.150-151.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p.81. “五臟已敗, 其色必夭, 夭必死矣.”(素問·三部九候論)

“어두운 것은 死色으로 이상 징조이다. 안색은 神의 표시이고, 오장은 神의 집이다. 그러므로 神이 떠나가면 오장이 망가진다. 오장이 망가지면 안색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면서 죽는다.”⁴⁰⁾라고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또 『黃帝內經素問·五藏生成』에서 “심장이 (우리 몸의 五體 중) 합하는 것은 맥인데, 그의 영화로움은 顏色에 나타난다.”⁴¹⁾하였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心은 생명의 근본이고, 神의 변화인데, 그것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고 그것의 충실함은 혈맥에 있으면서 陽中の 태양이 되어, 여름의 기운과 통한다.”⁴²⁾라고 하였다.

서양의 인상학은 히포크라테스에서 시작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에서 상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인물로 얼굴색을 보며 병을 읽고 치료에 임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상학을 질병퇴치를 위한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얼굴에 나타난 혈색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⁴³⁾.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들의 성격 표시를 몸의 어느 일정 부분을 동물의 특징과 비교하여 그 생김새로 인간의 기질과 속성과 귀천을 논했다. 동물들로부터 끌어내는 것과 화, 두려움, 성적 흥분과 기타 다른 열정들과 같은 마음 상태와 수반하여 관찰되는 특징적 얼굴 표정이 있다⁴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여 相書에서는 顏色을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醫書에서는 오장육부의 상태와 관련하여 언급하니, 제각기 학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靈樞·五色』에 대해 상학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五色」의 구절을 살펴보겠으며, 다만 안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았다.

1) 얼굴 부위의 명칭

뇌공이 말하기를: 오색은 명당에서만 구별됩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雷公問于黃帝曰, 五色獨決于明堂乎. 小子未知其所謂也.)

황제가 답하였다: 明堂은 코이고, 闕은 눈썹사이이며, 庭은 이마이고, 蕃은 뺨의 옆이며, 蔽는 귓구멍(耳門)이다. 그것들 사이가 반듯하고 흰하면 10보(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모두 명확하게 보인다.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백세까지는 산다.(黃帝曰, 明堂者鼻也, 闕者眉間也, 庭者顏也, 蕃者頰側也, 蔽者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 皆見于外. 如是者, 壽必中百歲.)

뇌공이 말하기를: 다섯 관직⁴⁵⁾의 구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雷公曰, 五官之辨, 奈何.)

황제가 답하였다: 명당은 콧대가 우뚝 솟아 반듯하게 끝아야 한다. 오장은 코 중앙으로 이어지고, 육부는 양쪽 측면에 배치되며, 두뇌는 이마에 있고, 왕궁(심장)은 하극(兩目之間)에 있다. 오장이 흉중에서 편안하여 건강한 색이 나타나고 병색이 없으면 명당이 윤택하고 맑다. 그러니 다섯 관직이 어떻게 구별되지 않겠는가?(黃帝曰, 明堂骨高以起平以直. 五藏次于中央, 六府挾其兩側, 首面上于闕庭, 王宮在于下極. 五藏安于胸中, 真色以致, 病色不見, 明堂潤澤以清. 五官惡得無辨乎.)

『觀相大典』에 보면 “五氣는 五臟에서 나와 神이 氣를 머물게 한다.”⁴⁶⁾ 의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위의 명칭과 해당 장기와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相學에서도 코 중간인 콧대를 年壽, 코끝은 準頭, 콧방울은 庭闕·蘭台라 명명하며 이곳을 통해 대부분의 건강을 점칠 수 있다. 그런데 『麻衣相法』에 “코는 오악 가운데 중악이니 그 형은 토에 속하는데 이를 財帛宮이라 한다. 코는 얼굴을 대표하는 곳ियो, 폐의 영묘라 한다. 그러므로 폐가 허하면 코가 통하고 폐가 실하면 코가 막히므로 코의 막히고 통하는 것을 보아 폐의 허하고 실함을 능히 알 수 있다. 준두가 둥글고 콧구멍이 뻗히 보이지 않으며 또 난대·정위(콧방울) 두 곳이 서로 응하면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다.”⁴⁷⁾라고 하고 있다. 또 『柳莊相法』에서는 “準頭가 흑색이고 蘭台가 어둡고 침침하면

39) 『內經』에 최초로 전면적인 주석을 단 唐代的 의가로서 ‘천지 자연의 변화를 모르면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까닭도 알 수 없다, 의술에 종사하는 자는 마땅히 천지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고 설파.

40) 洪元植. ibid. p.81. “五藏已敗, 其色必夭, 夭必死矣.”(素問·三部九候論) 구절에 대한 王冰의 注 “夭謂死色, 異常之候也. 色者神之旗, 藏者神之舍. 故神去則藏敗, 藏敗則色見異常之候, 死也.”

41) 洪元植. ibid. p.39. “心之合脈也, 其榮色也.”(素問·五藏生成)

42) 洪元植. ibid. p.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脉, 為陽中之太陽, 通於夏氣.”(素問·六節藏象論)

43)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11, p.130.

44) 朱宣姬. ibid. p.112.

45)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40. “五官者, 一曰耳爲採聽官, 二曰眉爲保壽官, 三曰眼爲監察官, 四曰鼻爲審辨官, 五曰口爲出納官.”

46) 曹誠佑. 『觀相大典』. 서울 : 明文堂. 1991 : p.295.

10여 일 후에 죽게 된다.”⁴⁸⁾라고 하였고, “준두가 밝아지면 죽게 될 사람도 다시 소생하며, 命門이 밝아지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몸이 편안하게 된다. 연상과 수상의 기색이 열리면 재액이 즉시 멀어지게 된다.”⁴⁹⁾라고 하였다. 또 『麻衣相法』에서는 “이 때문에 顏色이 영긴 비계처럼 희고 옷칠처럼 검으며 삶은 밤처럼 누렇고 진홍빛 비단처럼 질붉은 자는 모두 크게 부귀하다. 만약 안색이 불처럼 검붉게 드러난 자라면 단명하고 갑자기 죽는다. 모발의 색이 가늘며 혼탁하고 바짝 마른 고비처럼 되어 먼지가 낀 것 같으면 빈궁하고 일찍 죽는다.”⁵⁰⁾라고 하여 사람이 한 눈에 반듯하고 흰해보여야 富貴長壽한다 하였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흰하게 보이는 듯하나, 지나치게 흰색을 띠었는지 건강한 우윳빛인지는 개인의 피부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손과 목의 색을 잘 관찰하여 안색을 구별하여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뇌공이 말하기를: 그것(오관의 색깔)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雷公曰, 其不辨者, 可得聞乎.)

황제가 답하였다: 오색이 드러나는 것은 각각 그 색이 발현되는 부위로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위의 뼈까지 들어간 자는 반드시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색의 부위가 겹겹이 겹쳐진 것은 병을 심하게 앓을지라도 죽지는 않는다.(黃帝曰,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 部骨陷者, 必不免于病矣. 其色部乘襲者, 雖病甚不死矣.)

『柳莊相法』에서는 “무릇 병이란 재질에 불과하므로 병액궁(질액궁)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질액궁을 살펴 푸르고 어두우면 작은 병에 불과하지만, 이 부위가 검고 적색을 띠면 재앙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⁵¹⁾하였고, 『神相全篇』에서는 “몸은 초취하여 말랐어도 枯槁하지 않고, 喜容과 政色이 스며 있으면 중환자가

소생하는 찰색이다. 또, 혀로써 입술을 촉촉히 적실 수 있고, 바람 앞에 입을 꼭 다물 수 있으며, 인증이 光潤하고, 목소리와 눈빛이 좋고, 이마 쪽에 활기가 생하는 등등 이 가운데 한가지의 변화만 있어도 소생의 기쁨을 얻는다.”⁵²⁾하였다. 병이 깊었던 환자가 간호사를 향해 만면에 웃음을 띠는 것을 보고 한 눈에 완쾌를 알 수 있었다는 경험 많은 의사의 이야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五色으로 질병의 성질과 경중 판단

뇌공이 말하기를: 오색의 배당은 어떻게 합니까?(雷公曰, 官五色, 奈何.)

황제가 답하였다: 청색과 흑색은 痛이고, 황색과 적색은 熱이며, 백색은 寒이니, 이것을 오색의 배당이라고 한다.(黃帝曰, 青黑為痛, 黃赤為熱, 白為寒. 是謂五官.)

통증·열증·한증을 오행과 관련하여 배치했는데, 相書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麻衣相法』에서는 “木의 색이 푸르고 火의 색이 붉으며, 土가 누렇고 水가 검은 것이 참모습이고, 단지 金의 형상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으니, 다섯 가지로 안색이 돌아가면서 서로 같지 않다.”⁵³⁾라고 하였다. 그리고 『儒狀相法』에서는 “심장은 火가 발산하여 나가는 것에 속하여 氣가 건조하고 색이 붉다.”⁵⁴⁾라고 하였고, “신장은 水에 속해 氣가 혼탁하고 색이 검다.”⁵⁵⁾라고 하였으며, “청색은 肝經에서 나온다.”⁵⁶⁾라고 하였고, “검정은 水의 색으로 腎經에서 나온다.”⁵⁷⁾라고 하였으니, 오장의 순환을 顏色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또, 『氣色總論』에 青色, 赤色, 赤色, 白色, 黑色이 얼굴에 나타날 때 병이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내용이 있다. 소개하자면 “青色이 코 부위에 뜨면 10일 안에 中毒의 禍가 생기고, 눈 밑에 있으면 환자는 병이 낫지 않고, 코 부위에 손

47)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96. “鼻爲中岳, 其形屬土, 爲一面之表, 肺之靈苗也. 故肺虛則鼻通, 肺實則鼻塞, 故鼻之通塞, 以見肺之虛實. 準頭圓鼻孔不露, 又得蘭臺廷尉二部相應, 富貴之人.”

48)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29. “準頭黑, 蘭台暗黤, 旬日必身亡.”

49) 田龍元. ibid. p.163. “若準頭一明, 死者復生, 命門一亮, 不日身安, 年壽開, 災厄即遠.”

50) 申秉澈. 『達磨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p.47. “是以面色, 白如凝脂, 黑如漆色, 黃如蒸栗, 紫如絳繒者, 皆大富貴. 若面色, 赤暴如火者, 命短卒亡, 毛色茸茸昏濁, 枯燥無風, 似有塵埃, 主貧夭死.”

51)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00. “解曰, 凡病者, 不過災疾也, 要在病厄宮, 看此宮暗, 不過小疾, 此宮黑赤, 不過有災, 非主死.”

52) 麻衣天. 『복있는 관상은 어떤 얼굴인가』. 서울 : 동반인. 1991 : p.314.

53)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53. “木色青兮, 火色紅, 土黃水黑, 是眞容, 只有金形, 原帶白, 五般顏色, 不相同.”

54)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46. “心屬火發出, 氣燥色紅.”

55)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52. “腎屬水, 氣濁色黑.”

56) 袁忠徹. 『柳莊相法』. 臺北 : 新文豐出版公司. 1989 : p.83. “青色乃肝經發.”

57) 袁忠徹. ibid. p.85. “黑乃水色, 腎經所發.”

툰만큼 나타나면 下痢에 병이 있고, 대장에도 질병이 있다. 赤色이 이마에 콩알만큼 나타나면 사망의 위험이 생기고, 年壽에 생기면 질병을 앓고, 準頭에 있으면 오랫동안 앓는다. 黃色은 吉하지만 焦黃色⁵⁸⁾이 눈썹과 준두에 나타나면 사망한다. 白色이 볼에 윗입술에 나타나면 위병을 앓고, 여름에 마른 뼈처럼 얼굴에 나타나면 사망이나 刑獄이며, 일시에 命門⁵⁹⁾에 나타나 얼굴에 퍼지면 사망하고, 인당에서 귀와 입과 코로 흘러들어오면 10일 안에 중병의 액이 닳치고 심한 경우 사망하며, 壽上에 나타나면 50일 내에 사망한다. 黑色이 天中骨⁶⁰⁾에 1cm 이상 서려있으면 3개월 이내에 사망하고, 천중에서 연상, 지각까지 연기처럼 가로로 퍼져 내려오면 당일에 즉사하고, 이마 전체에 안개처럼 퍼지면 當年에 사망하거나 정신이상이 생기며,⁶¹⁾ 태양과 태음⁶²⁾을 덮으면 扁鵲과 같은 名醫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고, 年上에서 山根으로 直上하면 일 년 안에 죽고, 노인의 법령에 黑色이 있으면 3일 내에 사망하고, 입가에 있으면 20일 내에 病魔가 침범한다. 命門에 黑點이 생기면 즉사하고, 청흑색이면 머지않아 큰 병을 앓고, 이마 위쪽에 항상 끼어 있으면 일생동안 병이 떨어지지 않고 앓는 일이 많으며, 종이 탄 재와 같으면 단명한다.”⁶³⁾ 위 내용에서 보듯이 相書는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발병, 호전, 사망이라는 길흉화복에 대해 察色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뇌공이 말하기를: 색으로 병의 심한 정도를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雷公曰, 以色言病之間甚, 奈何.)

황제가 답하였다: 그 색이 진하지 않아 밝은 것은 병이 조금 나은 것이고, 칠퍼되어 진한 것은 심한 것이며, 그 색이 올라오는 것은 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그 색이 구름이 흩어지듯 내려가는 것은 병이 그치려는 것이다. 오색은 각기 장부가 있으니,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다. 색이 외부에서 내부로 치달는 것은 그 병이 밖에서 안으로 치달는 것이고, 그 색이 안에서 밖으로 치달는 것은 그 병이 안에서 밖으로 치달는

것이다. 병이 안에서 생긴 것은 먼저 음을 치료한 다음에 양을 치료하니, 거꾸로 하면 더욱 심해진다. 그 병이 양에서 생긴 것은 먼저 밖을 치료한 다음에 그 안을 치료하니, 반대로 하면 더욱 심해진다. 그 맥이 매끄럽고 으며 번갈아가면서 긴 것은 병이 밖에서 온 것인데, 눈에 헛것이 보이고 마음에 싫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양기가 가세한 것이니, 고치면 그뿐이다. (黃帝曰, 其色麤以明 ‘者, 爲間⁶⁴⁾, 沈夭者爲甚, 其色上行者, 病益甚, 其色下行如雲微散者, 病方已. 五色各有藏部, 有外部有內部也. 色從外部走內部者, 其病從外走內, 其色從內走外者, 其病從內走外. 病生於內者, 先治其陰, 後治其陽, 反者益甚. 其病生於陽者, 先治其外, 後治其內, 反者益甚. 其脈滑大以代而長者, 病從外來, 目有所見, 志有所惡, 此陽氣之并也, 可變而已.)

五臟의 精氣가 튼튼하면 그 색도 또한 生氣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이면 그 색도 어둡고 윤기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다⁶⁵⁾. 『儒狀相法』에서는 안색을 피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니 주목할 만하다. 곧 “피는 피부 안에 있지만 막히고 탁함과 밝고 왕성함을 알아야 氣色을 볼 수 있다. 피는 기색의 근본이니, 피가 풍족하면 기색을 밝히고, 피가 왕성하면 기색이 밝다. 은은하게 내부에서 응하여 밝게 타는 듯 하면 내부에서 색이 왕성한 것이다.”⁶⁶⁾라고 하였다. 병증과 윤기를 察色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 색이 얼어지면 병이 호전되는 것이고 진해지면 병이 깊어지듯, 윤기도 같은 형식으로 읽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색이 올라온다는 것은 피부바깥으로 진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구름이 흩어지듯이 내려가는 것은 병증이 사라지는 조짐이 되듯, 안색이 나쁘면 온도 따라 나빠지고 검붉은 색이 점차로 얼어지면 고민은 조만간 해결된다. 『얼굴경영』 책에 의하면 “피곤하면 腎의 기능이 떨어져 귀가 빨개진다거나 뺨에 열이 나고 붉어진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곤한 줄은 알아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얼굴에 나타난 병증은 볼 줄 모

58) 불로 그을린 듯 한 검은 빛이 감도는 황색을 말함.

59) 귀 입구 쪽 가까운 뺨 부위를 말함.

60) 이마 위 중앙 부위를 말함.

61) 麻衣天. 『복있는 관상은 어떤 얼굴인가』. 서울 : 동만인. 1991 : pp.360-361.

62) 눈 주변을 말함.

63) 麻衣天. ibid. pp.360-378.

64) 『甲乙經』에 따라 추가한 것임.

65) 丁彰炫. 『神에 대한 연구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p.73.

66)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91. “血在皮內, 要知滯濁明旺, 可看氣色. 血乃氣色根本, 血足方發氣色, 血旺氣色方明, 隱隱內應爲明灼, 內有色爲旺.”

른다...건강을 위해서라도 얼굴색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희면 흰 대로 맑은 색이 올라와야 건강한 것이다... 얼굴색을 살피는 것은 병이 오기 전에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⁶⁷⁾라고 적혀있다.

3) 五色으로 風·關·痺의 구별

뇌공이 말하기를: 저는 풍은 모든 병의 시작이고, 췌역은 한숨이 일어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雷公曰, 小子聞風者百病之始也, 厥逆者寒濕之起也. 別之奈何.)

황제가 답하였다: 항상 미간 가운데를 살피는데, 옅고 윤이 나면 풍이고 깊고 탁하면 비이며 이것이 (즉 깊고 탁한 것이) 지각의 부위에서 나타나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니, 각기 그 색으로 그 병을 말한 것이다. (黃帝曰, 常候關中, 薄澤為風, 冲濁為痺, 在地為厥. 此其常也, 各以其色言其病.)

命宮(미간)과 山根은 명확한 경계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達磨相法』에서 산근에 주름이 겹치고 색이 탁해지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은 참고할만하다. 곧 『達磨相法』에서 “사람의 病과 厄은 山根에 달려 있으니, 가로로 서는 것이 겹치면 병과 액을 당하고, 검은 색이 나오면 마침내 풍병이나 염병으로 죽는다⁶⁸⁾.”라고 하였다. 人相學(얼굴경영학)에서는 명궁(眉間)부위를 희망을 보는 자리로, 일의 성사여부를 보고, 청색이 明潤한 색으로 바뀌면 성공을 거둔다고 본다. 즉 폐와 관련하여 명궁이 밝아지면 한숨을 쉴 일이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간이 넓으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으로서, 계획을 세워 일하기 보다는 자기 마음 가는데로 생활...”⁶⁹⁾한다 했으니, 한숨을 쉬고 인상을 찡그리면 명궁에 주름이 생기면서 저절로 안색이 어두워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병이 병을 부르는 격이 될 만하다. 망진 시 미간이 탁하면 깊은 고층에 당면한

환자로 생각하며 처방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4) 五色으로 급사 판단

뇌공이 말하기를: 병이 약간 낫다가 갑자기 죽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雷公曰, 病小愈而卒死者, 何以知之.)

황제가 답하였다: 적색이 양쪽 광대뼈에 엄지 크기로 나타날 경우에는 병이 조금 차도가 있더라도 별안간 죽는다. 이마에 흑색이 엄지 크기로 보일 경우에는 병이 없음에도 반드시 갑자기 죽는다. (黃帝曰, 赤色出兩顴, 大如母指者, 病雖小愈, 必卒死. 黑色出於庭, 大如母指, 必不病而卒死.)

『麻衣相法』에서 말하기를 “火點(붉은 점)이 이마 위에 나타나면 한달 안으로 사망한다.”⁷⁰⁾ “黑色이 天中骨에 1cm 이상 서려있으면 3개월 이내에 사망하고...이마 전체에 안개 처럼 퍼지면 當年에 사망하거나...”⁷¹⁾라고 적혀있다. 또, “좌우 觀骨을 眼當이라고도 하는데 年上·壽相·左右觀骨에 불빛 같은 紅點이 나타나면 남자는 痔疾과 瘡病이 발생하고, 여자는 產厄을 당한다.”⁷²⁾ “관골에 赤青色이 섞이고 입술은 白色을 띠면 中風이 두렵다.”⁷³⁾라고 한다. 상학에서 광대뼈(觀骨)는 자신의 활동영역·저항의 힘을 나타내고, 이마는 국가·조직·신·부모의 영역이니 이마에 나타난 색은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이다. 『儒狀相法』에서 “三陽이 남색을 띠면 죽게 됨을 의심할 바 없지만 年上和 壽上이 밝아지면 반드시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 다섯 부위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기색이 열리면 죽지 않는다. 사람의 기색이 계속 어둡다가 어느 날 홀연히 밝게 빛나면 죽을 때에 이른 것이며, 항상 밝다가 홀연히 어둡게 되어도 죽음이 또한 이르는 것이다. 병으로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이 年上, 壽上, 三陽⁷⁴⁾에 붉은 색이 나타나면 10일 후에 죽게 된다⁷⁵⁾.”라고 하였다.

67) 朱宣姬.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p.316.

68) 申秉澈. 『達磨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p.60. “人生疾厄在山根, 橫立交加遭疾厄, 黑生終是死風瘟.”

69) 朱宣姬. 『얼굴 읽어주는 여자·인상 바뀌는 남자』. 서울 : 오픈하우스. 2013 : p.166.

70)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32.

71) 麻衣天. 『복있는 관상은 어떤 얼굴인가』. 서울 : 동만인. 1991 : p.376.

72)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36

73) 曹誠佑 完譯. ibid. p237.

74) 窺등과 눈꺼풀 위 주변

75)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64. “又云, 三陽如靛, 死必無疑. 年壽光明還須有救. 此五處一處開, 不死. 凡人氣色常暗, 忽一日光明, 死期至矣. 常明忽暗, 死亦至矣. 病必死者, 年壽三陽一赤, 旬日身亡.”

5) 얼굴 각 부위와 오장육부

뇌공이 두 번 절하며 말하기를: 대단하십니다. 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雷公再拜曰, 善哉. 其死有期乎.)
황제가 답하였다: 색을 살펴 그 때를 말한다.(黃帝曰, 察色以言其時.)

『達磨相法』에서 “神이 빼앗기고 색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부위에 해당되는 연령이라도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어렵다.”76)라고 하였고, 또 “질병은 산근의 청색이나 흑색으로 삶과 죽음을 가리는데 이러한 색이 짙으면 눈의 신기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병으로 죽는다.”77)고 하였다. 『儒狀相法』에서는 “입·준두·명궁·귀 이 네 곳에 서로 극하는 기색이 침범하면 죽게 됨을 의심할 바 없다. 극은 오행의 서로 극하는 이치이니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78)고 하였다. 또, “인당에 백의 기운이 나타나고 입에 황의 기운이 나타나면 7일 후에 죽을 목숨이며, 온 얼굴에 연기 같은 기색이 나타나고 붉은 빛이 보이면 반드시 14일을 방비해야 한다. 노인이 만면에 황색 빛이 나타나면 7일을 피하기 어렵고, 소년이 입 끝에 청색이 나타나면 1개월의 壽다. 병이 있는 사람은 준두를 봐도 운택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연상과 수상이 진흙 같고 귀가 먼지가 낀 것처럼 어둡다면 틀림없이 질병이 있는 것이다.”79)라고 하였다. 『麻衣相法』에서는 “口角80)에 白氣를 띠고 윤기가 없이 건조하면 현재 통증이 있는 상태요, 콧바위가 건조한 가운데 흑색을 띠면 죽음이 눈앞에 있다.”81)하였다. 특히 눈빛도 안색만큼이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 몽롱한 환자의 눈빛을 보고 병의 예후가 위급하여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뇌공이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지금 바로 들었으면 합니다.(雷公曰, 善乎. 願卒聞之.)
황제가 답하였다: 정은 얼굴이고 꺾상은 인후이며, 꺾중은 폐이고 하극은 심이며, 바로 아래는 간이고 간

의 왼쪽은 담이며, 아래는 비이고 방상(콧방울)은 위이고 중앙은 대장이며, 대장을 끼고 있는 것은 신이고 신에 해당되는 자리가 배꼽이며, 면왕 이상은 소장이고 면왕 이하는 방광과 자처이며, 광대뼈는 어깨이고 광대뼈 뒤는 팔이며, 팔의 아래는 손이다. 목내자의 위는 가슴과 젖히고 귀 위는 등이며, 아귀82)를 따라 아래는 넓적다리이고 중앙은 무릎이며, 무릎이하는 종아리이고 종아리에 해당하는 곳 아래는 발이며, 거분은 넓적다리 속이고 거골은 무릎종지뼈이니, 이것이 오장·육부·지절의 부위이다. 제각기 해당되는 부분 부분이 있으니 음으로 양을 조화롭게 하고 양으로 음을 조화롭게 하면서 각 부분을 분명히 알면 모든 것이 모두 마땅할 것이다.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큰 방법이니, 남녀는 위치가 다르므로 음과 양이라고 하니, 운택한지 어두운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을 훌륭한 의사라고 한다.(黃帝曰, 庭者首面也, 闕上者咽喉也, 闕中者肺也, 下極者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膽也, 下者脾也, 方上者胃也, 中央者大腸也, 挾大腸者腎也, 當腎者臍也, 面王以上者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肩也, 顴後者臂也, 臂下者手也. 目內眦上者膺乳也, 挾繩而上者背也, 循牙車以下者股也, 中央者膝也, 膝以下者脛也, 當脛以下者足也, 巨分者股裏也, 巨屈者膝臑也, 此五藏六府肢節之部也. 各有部分有分, 用陰和陽, 用陽和陰, 當明部分, 萬舉萬當. 能別左右, 是謂大道, 男女異位, 故曰陰陽, 審察澤夭, 謂之良工.)

위의 설명으로 볼 때, 준두 이하를 인중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준두보다 살짝 밑으로 콧방울이 있으므로 콧방울과 콧구멍 사이가 되는 자리가 어두우면 방광과 생식기에 적신호가 왔다고 본다. 『麻衣相法』에서 “蘭台 옆에 붉은 선이 얽힌 듯 나타나면 夢精을 자주하고 陽氣가 부족하다.”83)라 하였고 또, 『相法全書』에서는 “콧구멍 주위에 황미색이 나타나면 반드시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콧구멍에서 백색이 나타나는 사람은 淋疾

76)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7-28. “神奪氣移而色昏 雖遇好方 難逃卒死.”
77) 曹誠佑 完譯. ibid. p.34. “病以山根青黑, 爲生死不知, 眼神走脫者 病必亡.”
78)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00. “凡口準命耳, 此四處犯相克之氣色, 卽死無疑, 克乃五行相克之理, 不可不看詳細.”
79) 田龍元. ibid.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64. “白發印堂黃發口, 一七殞命. 四壁如烟起赤光, 須防二七. 老人滿面黃光現, 一七難逃. 少者青來口角邊, 一月之數. 有病人雖看準頭不潤, 好人則只看年壽如泥耳生塵, 還須有疾病.”
80) 입 모서리를 말함.
81)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43.
82) 牙車는 이가 박혀있는 뼈로서 귀 아래에서 입 밑으로 이어지는 아래턱 부위를 말한다.
83) 曹誠佑 完譯. ibid. 서울 : 明文堂. 1989 : p.236.

菌에 감염된 사람일 수 있다. 콧구멍 밖에서 백색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梅毒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이 때 콧방울 옆에서 좁쌀을 뿌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따라 코 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코의 양 옆으로 둥글게 나타나기도 하니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⁸⁴⁾라고 하였다. 목내자는 코에 가까운 눈두덩을 말한다. 相學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읽기도 하고, 관골이 어깨자리가 되므로 관골 아래쪽을 유방으로 보기도 한다. 법령 아래는 다리이다. 법령이 아래로 넓고 길게 내려오는 경우는 만년이 좋은 사람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허벅지 무릎 종아리 다리가 모두 건강하려면, 얼굴에서는 법령이 길고 넓게 잘 생기고 반드시 그곳 부위의 색이 좋아야 한다. 다리는 체상에서 말년에 속하며⁸⁵⁾, 法令(미소선)이 넓고 뚜렷하게 자리 잡으면 자신의 재량이 확실하고 넉넉하며, 특히 말년이 편안하다⁸⁶⁾고 할 수 있다.

6) 얼굴 각 부위의 색깔과 질병

가라앉으며 탁하면 내부이고 떠오르며 윤택하면 외부이다. 황적색은 풍이고 청흑색은 통이며 백색은 한이고, 황색이면서 기름지게 윤택하면 농이고 적색이 짙으면 혈이며, 통이 심한 것은 경련이고, 한이 심한 것은 피부에 감각이 없는 것이다.(沈濁為內, 浮澤為外. 黃赤為風, 青黑為痛, 白為寒, 黃而膏潤為膿, 赤甚者為血, 痛甚為攣, 寒甚為皮不仁.)

『儒狀相法』에서 “피부는 혈이 머무르는 곳이라 혈이 피부의 근본이니, 피부를 보면 혈의 쇠약함과 왕성함을 알 수 있다. 피부와 혈이 밝다면 윤택한 것이고 홍색이라면 마른 것이며 누렇다면 탁한 것이다.”⁸⁷⁾고 하였고, 또 “피부와 혈이 적색이라면 쇠한 것이고 백색이라면 체한 것이다. 탁하면 천하고 쇠하면 음란하며 막히면 요절한다. 이 때문에 혈색은 선명해야 되고, 겉과 속이 밝고 윤택하면 귀하다.”⁸⁸⁾라고 하였다. 상서에서는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안색을 논하다보니 구체적인 병증을 안색과 거의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7) 察色の 요점

오색은 각기 그 부위별로 나타나니, 그 떠오름과 가라앉음을 살펴 얕음과 깊음을 알고 윤택한지 어두운지를 살펴 성패를 보며, 흠어짐과 뭉침을 살펴 원근을 알고, 색의 상하를 봐서 병처를 알며, 마음에 정신을 집중해서 오래된 병인지 아닌지를 안다. 그러므로 기색을 살피미 자세하지 않으면 시비를 모르니, 뜻을 모아 흠어지지 않게 해야 새로 생긴 병인지 옛 병인지를 안다.(五色各見其部, 察其浮沈, 以知淺深, 察其澤天, 以觀成敗, 察其散搏, 以知遠近, 視色上下, 以知病處, 積神於心, 以知往今. 故相氣不微, 不知是非, 屬意勿去, 乃知新故.)

색의 밝기가 엷지 않고 어두우면 심한 것이고, 밝지도 않고 윤택하지도 않으면 그 병이 심하지 않은 것이다.(色明不羸沈天為甚, 不明不澤, 其病不甚.)

그 색이 망아지들처럼 흠어져 모여 있지 않으면 그 병은 (또한) 흠어지니, 氣痛이 있다 해도 적취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병은 나을 것이다.) (其色散駒駒然未有聚, 其病散而氣痛, 聚未成也.)

『觀相大典』에서 “氣色이란 五臟六腑에서 시작되어 겉에 나타났을 때 色이라 하니, 색이 안에 있으면 氣가 되고 밖에 있으면 色이 되며, 기가 있으므로 색이 있는 것이니, 기가 없으면 색도 없게 되어 길흉을 가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氣色은 아침에 몸 밖으로 나와 저녁에는 肝과 腸腑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근심하면 凶하고 惡한 기색이 생기며, 즐거우면 喜色이 돈다.... 연기나 안개 같은 색이 얼굴에 떠오르면 惡夢을 꾸게 되거나 혹은 사망하게 된다.... 얼굴에 기름칠한 듯한 빛이 떠오르면 병이 있거나 혹은 服을 입게 된다.... 오이김치와 같은 푸른 빛, 닭벼슬 같은 붉은 빛, 돼지기름 같은 흰빛, 먹이나 연기 같은 기운의 검은 빛이 오면 사망하게 되고, 오리새끼와 같은 누런빛이면 敗業하거나 죽게 된다.”⁸⁹⁾라고 하였다. 논자의 경험상 회복 중인 환자는 멍친 색도 엷어지고 어두웠던 색도 점차로 밝아진다. 여기서 성패를 본다는 것은 회복 여부를 보는 것이

84)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p.118.

85) 朱宣姬.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p.97.

86) 朱宣姬. 『얼굴 읽어주는 여자·인상 바꿔주는 남자』. 서울 : 오픈하우스. 2013 : pp.364-365.

87)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p.123. “皮乃血之處, 血乃皮之本, 看皮可知血之衰旺矣. 皮血明則潤, 皮血紅則枯, 皮血黃則濁.”

88) 田龍元. ibid. p.123. “皮血赤則衰, 皮血白則滯. 凡濁則賤, 衰則淫, 滯則天, 故此血宜鮮明, 表裏明潤, 則為貴矣.”

89) 曹誠佑. 『觀相大典』. 서울 : 明文堂. 1991 : p.290-292.

고, 원근은 회복 기간을 보는 것이다. 색의 상하를 봐서 병처를 안다는 것은 병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아 어떤 병인지를 안다는 뜻이다. 察色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환자의 타고난 피부색을 가늠하면서, 병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차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심장이 심장을 乘하면(乘하여 병을 일으키게 되면) 심장이 먼저 안에서 병이 나 신장의 색(검은색)이 상응되어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 찰색이 모두 이와 같다. (腎乘心, 心先病, 腎為應. 色皆如是.)

『麻衣相法』에서는 “기색이 외부로 쫓아 내부로 들어가면 병이 외부에서 생겨 안으로 침입한 것이고, 기색이 안으로 쫓아 밖으로 나타나면 병도 내부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다. 얼굴에 병색을 띠어 깊이 박히고 아래에서 위로 번지면 병이 더욱 심하게 되고, 병색이 위에서 생겨 아래로 내려오며, 구름같이 흩어지면 병이 낫는다. 또한, 병색이 위가 날카로우면 위로 향하는 것이요, 아래가 날카로우면 아래로 향하는 것이라 한다.”⁹⁰⁾고 하였다.

8) 성별에 따른 질환의 차이

남자의 색이 면왕에 있으면 소장통이고, 아래에 있으면 고환통이다. 그 환직은 경통이며, 높이 있으면 뿌리이고, 아래에 있으면 귀두이니, 호산이나 퇴음⁹¹⁾의 종류이다. (男子色在于面王, 為小腹痛, 下為卵痛. 其鬪直為莖痛, 高為本, 下為首, 狐疝瘻陰之屬也.)

『觀相大典』에서는 “누런빛이 코와 귀와 인당에 나타나면 막혔던 운도 트인다. 年壽의 누런빛은 위장에서 생기고 눈의 기운은 간에서 나온다...”⁹²⁾ “年上の 白氣는 重喪을 만나거나 조부모의 服을 입게 되고, 壽上の 白氣는 一年에 服制數가 있고, 準頭에 白氣는 부모의 服이니 이 色이 심하면

자신이 사망하고, 가벼우면 재물을 탕진하고, 人中の 白氣는 중독되거나 産厄이 있고...”⁹³⁾ “적색이 코에 나타나면 명예와 재산 손실이 있고, 흑색이면 어리석은 처신으로 절망적 입장에 놓이거나 자기 몸을 망치게 되는 징조이므로 이 색이 나타나면 미리 謹慎하여 충돌을 피해 넘기고, 몽색이 나타나면 지위 실추나 신분이 불안정해진다.”⁹⁴⁾ 『麻衣相法』에서는 “年上和 壽上(콧등)의 위치가 赤光하면 膿血病이 생기고, 눈썹머리에 붉은 기색이 돌으면 非命의 橫厄이 있다.”⁹⁵⁾라고 적혀있다. 相學에서 콧대의 넓이와 콧방울·코 끝의 색과 탄력의 정도로도 병을 알 수 있지만, 병이 없이 건강해도 흉할 일이 생길 때면 안색으로 미리 다가올 길흉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자의 색이 면왕에 있으면 방광자처의 병이니, 색이 흩어져 있으면 통이고, 뭉쳐 있으면 취(적취)다. 적취가 네모인지 둥근지 좌측인지 우측인지는 각각 바깥으로 나타나는 색과 형으로 본다. 만일 그 색이 아래로 내려가 끝까지 이르면(인중의 끝 입술위쪽) 淫⁹⁶⁾인데 기름처럼 윤이 나는 것은 폭식으로 절제가 없어서이다. 색이 왼쪽에 있으면 병도 왼쪽에 있고 색이 오른쪽에 있으면 병도 오른쪽에 있다. 그 색에 사기가 있으면 모이고 흩어지면서 바르지 않으니, 얼굴색에 나타나는 것이다. 색은 청흑적백황이다. 모두 端滿(단정하고 충만)해야 하고 (각기 대응하는) 다른 부위가 있다. 별향⁹⁷⁾이 적색인 것이 느릅나무 고투리처럼 面王에 크게 보이면 하루가 되지 않아 낫는다. 그 색이 날카롭게 올라가면 머리의 정기가 위로 흩어지는 것이고, 아래로 날카로우면 아래로 흩어지는 것이니, 좌우에서도 이처럼 보면 된다. 오색으로 오장을 명명하니, 청색은 간이고 적색은 심이며, 백색은 폐이고 황색은 비이며, 흑색은 신이다. 간은 근과 합하고 심은 맥과 합하며, 폐는 피부와 합하고 비는 육과 합하며, 신은 골과 합한다. (女子在于面王, 為膀胱子處之病, 散為痛,

90)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55.
 91) 狐疝(호산) : 陰狐疝氣 라고도 함. 음낭 안으로 이물이 들어가 있어 오르내리는 병증을 말할. 瘻陰(퇴음) : 陰腫(음종). 고환, 음낭의 병증.
 92) 曹誠佑. 『觀相大典』. 서울 : 明文堂. 1991 : p.295.
 93)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31.
 94)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p.102.
 95)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235.
 96) 淫 : 白淫의 줄임말. 여기서는 여자의 냉대하병을 말할.
 97) 다른 부위- 적색은 심장의 색이어서 마땅히 양쪽 눈 사이에서 보여야 本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왕에 보이면 이는 별향이다. (火色이 토의 위치에 보이니 이는 相生의 관계로 봄)

搏為聚，方員左右，各如其色形。其隨而下至脈，為淫，有潤如膏狀，為暴食不潔。左為左，右為右。其色有邪，聚散而不端，面色所指者也。色者，青黑赤白黃。皆端，滿有別鄉，別鄉赤者，其色亦大如榆夾，在面王，為不日⁹⁸⁾。其色上銳，首空上向，下銳，下向，在左右如法。以五色命藏，青為肝，赤為心，白為肺，黃為脾，黑為腎。肝合筋，心合脈，肺合皮，脾合肉，腎合骨也。)

여성이 코에 엄지도 아니고 느릅나무 잎 정도의 적색이 나타난다면, 이 병색은 인중까지 침범한 것이 된다. 상학에서 인중이 어두우면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거나 폐경이거나 생식기에 병이 있어 수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여성이 준두에서 인중까지 건강하지 못한 색이 나타났을 경우, 그녀의 부부궁(치첩궁)⁹⁹⁾을 살펴보자 좁쌀 같은 것이 돌고 색이 어둡다 해도, 간문¹⁰⁰⁾자리는 건강한 화색이 돈다면 병이 침범했다기 보다 불편한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이 깊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심한 갈등으로 인해 병이 올 수도 있겠으나 그 병은 아직 발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麻衣相法』에 나오는 “準頭 아래가 人中인 것이니... 만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빛이 운택하지 못하거나 몹시 좁으면 자손을 두지 못하고 고독·빈궁하다.”¹⁰¹⁾의 의미를 참고할 수 있다.

Ⅲ. 考察

1. 기색 활용

한의학에서 일찍부터 얼굴을 통해 기색을 읽는 것은 건강을 살피는 망진법이다. 얼굴의 형태나 색깔 및 행동 등을 보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상태를 파악하여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觀形察色の 하나로 심장·신장·폐·간·비장 등을 얼굴의 각 위치와 연결하여 병증을 관찰·치료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인상’ 한자 뜻은 사람 人·서로 相이다. 인상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므로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만들어진 표정근육과 현재 마

음상황을 알려주는 얼굴색을 불식간에 보면서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결정하게 된다. 의사는 앞에 있는 환자의 얼굴을 재빨리 읽으면서 ‘건강하다, 허약하다’를 평가할 것이다. 마치 인상연구가가 마주한 사람의 얼굴색을 보며 한 눈에 그의 운기를 읽어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평소 가지는 감정이 주로 어떠한 종류였는가, 몸은 병 없이 건강한가가 안색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形象醫學은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면, 생긴 대로 운이 오고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이 상학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생긴대로 살지 말고 몸과 마음과 인재를 경영하여 성공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얼굴경영적 차원에서 유능하고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 찰색관리를 한다.

한의학에서의 망진은 환자를 치료하고, 상학에서의 관형찰색은 내담자의 미래를 상담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찰색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학의 관형찰색은吉凶禍福의 이치를 사람의 얼굴에서 찾아 마음을 닦고 안색을 바꿈으로써 凶과 禍를 피하여 吉과 福을 짓게 하고, 한의학의 망진은 건강상태를 얼굴에서 읽어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 유사점과 차이점 고찰

1) 유사점

(1) 얼굴부위 명칭인 天中, 天庭, 司空, 印堂, 山根, 人中, 承漿, 地閣 등의 용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相法에서 병이 깊어져 사망에 이르거나, 회복단계의 간단한 察色은 望診과 유사하다.

(3) 調和論, 天人相應論, 陰陽五行論, 類比推理, 時空合一論의 관점이 같아 한 뿌리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차이점

(1) 形象醫學은 생긴 모양대로 병이 오고, 생긴 모양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생긴 모습대로 운

98) 『甲乙經』에 ‘日’이 ‘月’로 되어 있으므로 월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察色法으로 보면 ‘月’이 옳다.

99)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p.98. 妻妾부위해설: 자기의 배우자나 이성에 관한 길흉을 판단한다.

100)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p.98. 奸門부위해설: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길흉을 판단한다.

101) 曹誠佑 完譯. ibid. p.106.

이 오고, 사는 방식과 생각에 따라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오늘날 相學의 특징이다.

(2) 한의학에서는 오장의 상태를 얼굴에서 확인하기 위해 耳目口鼻舌을 五官으로 보고, 상학에서는 耳目口鼻眉를 五官으로 본다. 의학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시급한 목적이 있고, 상학에서는 얼굴을 한 번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相書에서는 안색을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의서에서는 오장육부의 상태와 관련하여 언급하니, 제각기 학문의 특성이 다르다. 『靈樞·五色』 49편에는 痛症, 熱證, 寒證 등을 五行과 관련하여 배치했는데, 相書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脈口 진단 등의 내용은 相學의 연구 영역이 아니므로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4)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병이 생겨야 부위별로 나쁜 안색이 나오지만, 相學的 관점으로 보자면 마음이 병들었을 때 어두운 색이 올라온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길흉화복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학에서는 찰색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므로 마음관리를 통해 앞날을 예측, 관리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성공적 삶을 목표로 하는 얼굴경영적 차원에서 察色 관리가 응용되고 있다.

3. 나아갈 방향

서양에서 상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히포크라테스는 인상학 입장에서 보면 ‘인상학의 대부’이다. 풍수와 상학을 활용, 얼굴에 나타난 혈색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했으니 관형찰색을 활용하여 진료한 의사였던 것이다. 현재 서양의학의 대부로 존경받고 있으나 히포크라테스와 이제마가 제기한 4가지 유형의 체질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따라 한다고 할 만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¹⁰²⁾. 그러나 이제마는 인체장부의 크기라는 물질적 측면,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을 기준으로 한 이성적 측면 외에 회로에락이라는 정신적 측면으로도 사상체질을 구별하였다¹⁰³⁾. 이렇듯 한의학은 無形의 相과 有形의 相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병

을 예방하고 보완·치료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얼굴경영』에서는 얼굴을 캔버스로, 마음은 물감으로, 행동은 붓으로 보아서, 생긴대로 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따라, 삶의 방식에 따라, 직업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며 얼굴의 주인이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⁴⁾. 노자의 마음에 따라 상을 보는 사람이 다르게 읽었다고 하는 고사도 이러한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¹⁰⁵⁾. 동양에서의 인상학 연구는 바로 현실적 사실과 불확실한 미래의 개연성이라는 사회심리적 이중구조 속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⁶⁾. 또한 난치성 질병의 영역이 확대되며 사회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한의학과 관련 학문 분야들 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와 실제적 응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의 진단 방법의 여러 장점과 相學을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 연구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結論

韓醫學에서 望診의 목적은 주로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며, 相學의 목적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판단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黃帝와 雷公의 병증에 대한 대화 중 “청색과 흑색은 痛이고, 황색과 적색은 熱이며, 백색은 寒이니, 이것을 오색의 배당이라고 한다(黃帝曰, 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謂五官.)”라는 내용은 相學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는 相學에서 察色을 통해 병세의 구체적인 증상보다는 대체로 길흉화복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黃帝와 雷公이 「五色」에서 脈口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상학이 아닌 분명한 한의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柳莊相法』에서 혈을 피부와 관련시켜 설명하여 “피부는 혈이 머무르는 것이어서 혈이 피부의 근본이니, 피부를 보면 혈의 쇠약함과 왕성함을 알 수 있다. 피부와 혈이 밝다면

102)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186.

103) 朱宣姬, *ibid.* p.187.

104) 朱宣姬,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p192-194.

105) 朱宣姬, *ibid.* p192-194.

106) 朱宣姬, 「동·서양 인상학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p.183.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

은택한 것이고 홍색이라면 마른 것이며 누렇다면 탁한 것이다¹⁰⁷⁾”라고 한 것은 「五色」에 없는 내용으로 안색 중 혈색 위주로 혈의 성쇠와 청탁을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얼굴 부위 명칭에 있어서 天中, 天庭, 司空, 印堂, 山根, 人中, 承漿, 地閣 등의 용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이 깊어져 사망에 이르거나 회복단계를 의미하는 간단한 察色의 望診은 매우 유사하다. 또한 調和論, 天人相應論, 陰陽五行論, 類比推理, 時空合一論의 관점이 같아서 『黃帝內經』의 望診법이 당대의 상법과 동일한 바탕 위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여러 相書의 내용은 이러한 相學的 원형에서 출발하여 부위와 察色 방법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吉凶禍福의 人事를 설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相學을吉凶禍福 등 人事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지도를 겸할 경우 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相學과 韓醫學이 동시에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韓醫學과 相學的의 접합점을 최고의 의서인 『黃帝內經』을 토대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1.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09.
2. 麻衣天. 『복있는 관상은 어떤 얼굴인가』. 서울 : 동반인. 1991 : 314, 360-1, 360-78.
3. 박석준.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 신경 개념의 도입과 기를 보는 관형찰색」. 과학사상. 2003 ; 48 : 47.
4. 朴駿奎. 『형상의학』.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3.
5. 申秉澈. 『達磨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16, 27-8, 34, 35, 47, 60.
6. 袁忠徹. 『柳莊相法』. 臺北 : 新文豐出版公司. 1989 : 83, 85.
7. 李鳳教 編著. 『漢方診斷學』. 서울 : 成輔社. 1997 : 42.

8. 田龍元 譯. 『麻衣相法 譯註』. 서울 : 월간역학. 2007 : 47-8.
9.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1, 29, 46, 54, 91-2, 100, 123. 163-4.
10. 曹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서울 : 明文堂. 1989 : 40, 52-3, 96, 98, 106, 150-1, 231, 232, 236, 237, 243, 245, 255.
11. 曹誠佑. 『觀相大典』. 서울 : 明文堂. 1991 : 290-2, 293-8.
12. 曹誠佑. 『相法全書』. 서울 : 明文堂. 1990 : 87-8, 98, 102, 118.
13. 朱宣姬. 『동양상법및실습』.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59, 81.
14. 朱宣姬. 『얼굴 읽어주는 여자·인상 바꿔주는 남자』. 서울 : 오픈하우스. 2013 : 166, 364-5.
15. 朱宣姬. 『얼굴경영』. 서울 : 동아일보사. 2005 : 97, 102-3, 192-4, 316.
16. 朱宣姬. 『인상학이해』. 서울 :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6, 7.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36, 39, 81, 119.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215, 342.
19. 曠노규. 「감각과 신체 : 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2007 ; 3.
20. 金光浩. 「時·空 合一의 관점으로 살펴본 안면망진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1. 남무길.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85.
22. 朴駿奎. 「芝山 朴仁圭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
23. 白根基. 「精氣神血科의 形象에 대한 연구」. 大韓形象醫學會誌. 2005 ; 6(1).
24. 白根基.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5. 張錫二. 「『黃帝內經·素問』에 나타난 望診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8 ; 2(1) : 286.
26. 丁彰炫. 「神에 대한 연구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9-30, 73.

107) 田龍元, 柳莊相法. 서울.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p.123. “皮乃血之處, 血乃皮之本, 看皮可知血之衰旺矣. 皮血明則潤, 皮血紅則枯, 皮血黃則濁.”

27. 조동욱, 김선영. 「망진을 위한 정면 얼굴 영역 및 특징 요소 추출」.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05 ; 30(6).
28. 朱宣姬. 「동·서양 인상화 연구의 비교와 인상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4, 11, 73, 112, 130, 183, 186, 187.